

공세적 방어: 냉전기 미국 미사일방어체제와 핵전략

이 글은 미소 냉전기에 미국이 추진했던 미사일방어체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현 부시행정부하에서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특히 부시행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는 불가피하고도 순수한 방어 수단이라는 설명은 냉전기 미국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그 타당성이 약하다고 주장한다. 냉전 초기 소련의 전략공격능력은 매우 미약했으므로, 미사일방어체제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미국은 공수에서 모두 소련에 우위를 점하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었다. 소련이 실질적인 전략공격능력을 보유하게 된 이후에 준비된 미사일방어체제인 나이키엑스, 센티널, 세이프가드, 그리고 전략방위구상 이 모두는 미국의 전략공격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미국 본토와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를 거듭 추진했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공격력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즉 냉전기 미국의 일련의 정책(대량보복, 유연반응, 피해제한, 확증파괴, 장기핵전쟁에서의 승리)들은 미사일방어체제가 동반될 때 비로소 구체적 실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냉전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는 공격을 위한 방어였고 미사일방어체제를 단순방어로 파악하는 설명으로는 미사일방어체제의 이러한 국제정치적 함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안보환경의 향후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주제어: 공세적 방어, 미사일방어체제, 공세적 현실주의, 미국의 핵전략

I. 서론

이 글은 미소 냉전기에 미국이 추진했던 미사일방어체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현 부시행정부하에서 미국이 배치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살펴보려한다. 이 글은 특히 부시행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는 불가피하고도 순수한 방어 수단이라는 설명은 냉전기 미국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그 타당성이 약하다고 주장한다. 부시행정부의 주장의 근거에는 공격은 악이고, 방어는 선이라는 상식적인 추론이 자리하고 있다. 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은 나쁘고, 그것을 격추하기 위한 미사일은 나쁘지 않다는 논리이다(Goldfischer 1993, 1). 이러한 대립적 논리에서는 미사일방어체제의 필요성이 자명해지므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일은 논외의 것이 된다.

하지만, 냉전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는 그런 선악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요인에 의해 추진되었다. 미국은 단순한 본토방어가 아닌 복합적인 전략적 계산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미사일방어체제를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상존하던 소련 핵미사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서로 다른 전략적 선호와 소련과의 지속되는 무기 확충·개발 경쟁에서 비롯된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의 추진에는 부침이 존재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단순 방어에 대한 고려보다는 변화하는 국제적·국내적 요인이 미사일방어체제의 추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해서도 '상식적' 이해를 넘어서는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안보환경의 향후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추진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된다. 우선 미국이 추진한 첫 번째 미사일방어체제인 나이키제우스(NIKE-ZEUS), 센티널(SENTINEL), 그리고 현 부시행정부의 프로그램 등은 모두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적대국의 미사일이 구체화되기 이전에 시작되었다.¹⁾ 예를 들면, 나이키제우스의

1) 나이키제우스는 소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센티널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부시

연구개발은 1956년에 시작되었지만, 소련은 1960년까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했고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도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에 실질적 타격을 입힐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중국은 1981년에야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DF-5)을 배치하였지만, 미국은 센티널 체제를 1960년대 후반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북한 등의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핵무기가 구체화하기 전에 미국은 그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를 추진하여 왔다.

물론 이러한 사전 조치는 실전 적용이 가능한 미사일방어체제의 개발, 실험, 구축 등에 필요한 소요 시간(lead-time, 최소 수년)을 고려한다면 일견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항상 가상 적국의 미사일 개발을 대비하고, 필요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미사일방어체제를 추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추진은 단순 방어의 필요성보다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미국의 전략적 선택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배치한 이후에 미국은 그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중국의 미미한 미사일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효과적인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이 미사일 전력을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을 쉽게 상쇄할 수 있었다.²⁾ 또한 1970년대 소련의 대대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력 증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것에 대한 방어체제 구축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³⁾

프로그램은 북한을 비롯한 소위 '불량' 국가의 대륙간탄도미사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은 주장하였다. 나이키제우스와 센티널의 요격목표와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Smith(2000, 2-4)를 참조할 것. 특히 존슨행정부는 센티널이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주요 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McNamara(1967)를 참조할 것. 이러한 선언에 이르게 한 미국의 국내정치적 배경에 대해서는 Halperin(1972)을 참조할 것.

- 2) 그 이후에 최근까지 중국이 보유한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은 20기 정도의 DF-5 미사일로 평가되고 있다.
- 3) 이에 대해서는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효과적인 방어망 구축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사일방어체제가 정말로 사활적 필요성을 지니는 과제였다면 미국은 기술개발에 보다 일관적인 노력을 기울여 소련의 전력 증강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미사일방어체제 개발을 위한 미국의 노력은 유명무실한 수준에 그쳤다.

미국의 이러한 엇갈리는 경험은 위협에의 대응이라는 단순한 도식으로는 여러 차례에 걸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노력의 이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부각시킨다. 냉전기 미국이 추진했던 미사일방어체제의 목표는 표면적인 설명보다는 더 복합적인 것이었다. 즉 미사일방어체제는 단순히 위협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라기보다 경쟁자들보다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의 적극적인 전략적 계산의 산물이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냉전기 미국이 추진했던 여러 차례의 미사일방어체제가 미국의 핵전략 구상과 어떻게 맞물려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그 기간 동안 전략핵무기에 있어서 미국과 소련의 전력 균형을 살펴보고, 미국이 핵전력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수정하였는지를 추적한다. 미국의 핵전략과 핵무기 사용계획은 미사일방어체제가 단순한 방어망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을 보강하기 위한, 다시 말하자면 핵공격 능력의 보유로 정의되는 미국의 전략목표 달성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음을 시사한다.

II. 미사일방어체제, 전략무기 균형, 그리고 미국의 안보전략

공세적 현실주의 이론(Offensive Realism)은 강대국은 항상 기존의 힘의 균형(status quo)을 변경할 기회를 모색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그 기회를 적극 이용한다고 주장한다(Mearsheimer 2001, chap. 6). 냉전기 미국과 소련은 상대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비경쟁(arms race)을 하였다. 그 경쟁은 양국 전략 핵무기의 질적 개선 및 양적 확대로 결과되었지만, 어느 일방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핵시대의 개막이래 미국은 부동의 세계 최강의 핵무장국의 지위를 유지하여 왔다. 하지만, 미국의 핵독점의 시기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소련이 핵공격 능력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미국은 전략핵의 우위를 지키고 핵전쟁 발발시에는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McNamara 1983; Mearsheimer 2001; Lieber and Press 2006; Kaplan 1983; Enthoven and Smith 2005; Freedman 2003; Glaser 1990; Sagan 1989; Ball and Richelson 1986; Ball and Toth 1990; Richelson 1983; Rosenberg 1983). 냉전기에 추진되었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는 이러한 미국 핵전략의 일부분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핵전략에 대한 고려없

이는 왜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를 거듭 추진하였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진다.

냉전기 미국의 핵전략은 미국의 세계대전략(*grand strategy*)에 기반하여 핵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규정하였다. 냉전기에 미국의 세계대전략은 우선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는 것이었고, 필요한 경우 소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다 (Gaddis 2005; Posen and Van Evera 1983).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소련과의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미사일방어체제는 핵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한편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가 소련의 장거리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일견 표면적 목적에 가려 드러나지 않는 점은 미사일방어체제가 두 가지 전략적 유용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미사일방어체제는 소련의 가상 선제핵공격(*first strike*)으로부터 미국의 보복핵공격(*second strike*) 능력을 보호하는데도 유용하지만,⁴⁾ 미국의 선제핵공격이후 예상되는 소련의 보복공격의 위력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다.⁵⁾ 아래에서 냉전기 미국과 소련 사이의 전략핵무기 균형이 어떠했는지 먼저 살피고, 미사일방어체제가 어떻게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도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1. 양극적 경쟁

냉전기에 국제체제의 주요변수가 미소 양강의 경쟁이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

-
- 4) 일반적으로 선제핵공격(*first strike*) 능력은 타국을 전략 핵무기로 공격하여 타격을 가함으로써 타국의 보복공격을 자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한편 보복핵공격(*second strike*) 능력은 적의 선제핵공격 이후에도 여전히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5) 최근 추진되는 미사일방어체제가 미국의 선제핵공격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은 Lieber and Press(2006)에서 가설적으로 제시되었다. 필자들의 주장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실제로 선제핵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아니다. 요점은 미국이 효과적인 선제핵공격 능력을 보유한다면, 아주 제한된 수준의 미사일방어체제라도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냉전기 이래 미국의 핵전략의 핵심 중의 하나가 대군사타격(*counterforce*)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이다(Gaddis 1997; Zubok and Pleshakov 1996; Garthoff 1994). 물론 그 결과 파생된 양극 체제는 결코 불변은 아니었고, 국제적 변수와 양극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변수에 따라 다소의 변동을 경험하였다.⁶⁾ 그러나 이러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련은 전략적 우위를 잡하기 위해 상대적 군사력(relative power)을 증강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그 결과 냉전기의 양극체제가 유지되었다. 상대적 우위를 잡하기 위한 양극의 노력은 양극 방위비 증대에 이어지는 전략 핵무기의 개발과 개선으로 잘 나타난다.

1) 방위비 경쟁

냉전기 미소 양극의 방위비 추세는 상대방에 대한 강한 견제를 잘 드러낸다. 그림 1은 이러한 양극의 경쟁을 요약한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입은 피해는 소련의 경우가 미국보다 훨씬 심각하였다. 따라서 전쟁직후인 1946년에 미국은 소련(90억 달러)의 다섯배인 450억 달러를 방위비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련은 경제적인 상처를 회복하였고, 미국과의 격차를 급속도로 좁혀나가기 시작하였다(Mearsheimer 2001, 73-74).⁷⁾ 이러한 소련의 경제회복과 지속되는 발전은 소련으로 하여금 미국의 방위비투자규모를 따라잡을 수 있게 하였고, 마침내 1970년대 초반에는 미국의 방위비규모를 추월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냉전 말기에 이르면서 소련의 총생산능력의 성장(GNP growth rates)은 급속도로 저하되었지만, 사실상 이 시기동안 소련의 경제성장 속도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경이적인 것이었다.⁸⁾

6) 이 시기에 중국의 소련(또는 미국)에 대한 반발은 양극체제의 적실성을 약화시키고, 삼극체제 주장도 가능하게 하였다. 냉전기 삼극체제에 대한 논의는 Kim(1992); Schweller(1998); Segal(1982)을 참조할 것.

7) 예를 들어, 미어샤이머(Mearsheimer)의 계산에 의하면 양극의 경제를 합한 규모를 100%로 상정했을 때, 1945년에 소련의 몫은 16%, 미국의 몫은 84%였으나, 1965년에 그 비율은 각각 33%와 67%로 변화하였다.

8) 이러한 소련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요인에 대해서는 Ofer(1987, 1767-1833)를 참조할 것. 1950년에서 1985년 사이에 소련의 연평균 경제성장률(GNP growth rate)은 4.3%였고, 특히 냉전 초기인 1950년부터 1960년까지 사이에 그 비율은 5.7%였다. 오페(Ofer)에 따르면, 국제적 야심과 서방세계에 대한 공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당시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주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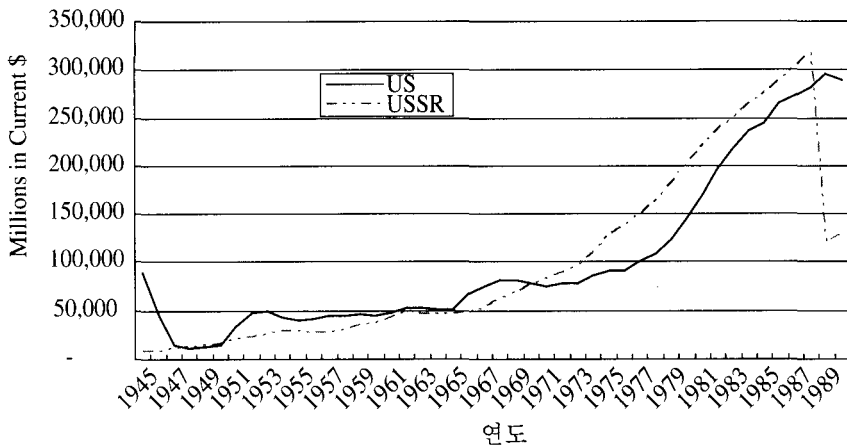


그림 1. 냉전기 미소 군비경쟁

출처: *Correlates of War Dataset on Material Capabilities of States, 1816-2001, version 3. 02.*

하지만, 총 방위비 규모에서의 역전이 이 시기의 미국이 경쟁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약해지거나 안보문제를 우선순위에서 제외시켰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림 2에서 보여지듯이, 양국간 군인 1인당 방위비 비교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 지표에 따르면 미국의 우위는 지속되고 오히려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였다.

이런 추세는 당시 미국 행정부가 소련의 방위비 증강에 대처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세간의 평가와⁹⁾ 전략 무기를 현대화하려는 소련의 구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군사비 경쟁에서 결코 약세에 처하지 않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미국 병력자원의 수는 베트남전의 최절정기인 1960년대 말 이후 지속적으로 감축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실제로는 소련보다 더 많은 비용을 미군 병력에 투여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 보자면, 1970년대에 미국은 병력 1인당 평균적으로 41,000달러를 사용할 수가 있었고, 이는 소련과 비교해서 10,000달러 이상 많은 것

9) 이 시기 총방위비 규모에서 미국의 상대적 약세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 국내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우선, 미국의 베트남전에의 참전이 역설적으로 미국의 전략과 방위비 예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은 국제문제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개입의 자제를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미국의 베트남전에서의 경험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Gray and Barlow(1985, 27-69); Brady(1990, 260-269)를 참조할 것. 이런 경향 때문에 혹자는 미국의 입장에서 1970년대는 '방임(Neglect) 또는 쇠락(decline)의 10년'이라 칭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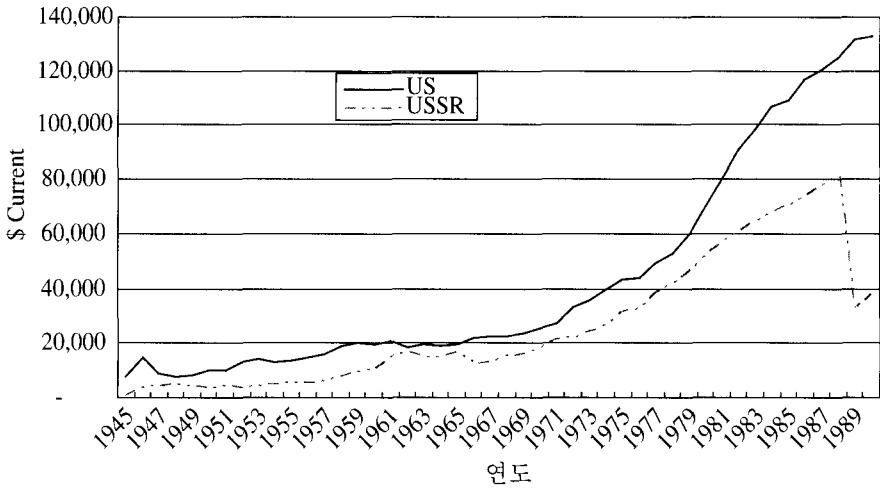


그림 2. 병력 1인당 국방비: 미국과 소련

출처: *Correlates of War Dataset on Material Capabilities of States, 1816~2001, version 3. 02.*

이었다. 반면에 소련은 1960년대 중반부터 냉전 종결기까지 같은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1970년대 소련의 증대된 군사비 규모는 실질적으로 그리 인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런 사실은 미군이 소련군보다 우월한 장비를 이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이 시기에 미국이 배치한 전략핵탄두의 숫자는 두 배로 증가하였다.¹⁰⁾ 이러한 전략무기의 확대는 전략 핵무기의 생존가능성, 내구성, 반응성 및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당시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서 기인하였다(Ball 1990, 94-95). 예를 들어, 닉슨행정부는 예산증액이 없는 상황에서도 다탄두 전략핵미사일(MX), 신형 트라이던트(Trident) 핵잠수함과 미사일, 신형 B-1 전략폭격기, 근거리 공격용 미사일(short-range attack missile) 및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 등 다양한 핵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Gray and Barlow 1985, 44). 이런 공격용 핵무기의 개발 이외에도 미국은 이 시기에 소련보다 더 많은 핵실험을 실시하였다.¹¹⁾ 또한 미

10) 한 자료에 따르면, 1969년에 미국이 실전배치한 전략 핵탄두는 5,962개였지만, 1979년에 그 숫자는 11,088개로 증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NRDC), "U.S. Strategic Offensive Force Loadings." <http://www.nrdc.org/nuclear/nudb/datab1.asp> (검색일: 2007. 8. 8).

국은 이 시기에도 핵무기 개발과 실험에 이전 시기와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투여하였다.¹²⁾

결과적으로 1945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은 총 4천 90억 달러(1996년 불변가치)를 핵폭탄 개발에 투여하였고, 추가적으로 1945년부터 1996년까지 3조 2천 4십 1억 달러(1996년 불변가치)를 핵폭탄 운반수단의 개발에 사용하였다(Schwartz 1998, 32: 104).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은 1천억 달러(1996년 불변가치)를 미사일방어체제의 개발에 투여하였다(Schwartz 1998, 270). 하지만, 이런 투자비용상의 차이가 미사일방어체제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이는 단지 미사일방어체제를 포함한 다른 방어체제의 수립이 미국의 전략적 고려에서 우선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한다.¹³⁾ 만약 소련의 전략미사일 공격이 치명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어 미사일방어체제가 미국의 안보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면,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에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예산을 투여하여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냉전기 미국의 전략은 소련에 대응하여 실제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대안과 능력을 확보하여 소련보다 전략적 우위에 서는 것이었다. 미사일방어체제는 이러한 전략적 고려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요소였다. 아래에서는 냉전기 미국의 전략무기 체제의 발전이 어떻게 이러한 논지를 뒷받침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2) 전략무기 경쟁

구체적인 서술에 앞서, 두 가지가 먼저 지적되어야 한다. 첫째, 주지하다시피 전략핵무기는 냉전기 미소 양국의 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11) 1969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 실시된 미국과 소련의 핵실험 횟수는 각각 274회와 246회였다. 자세한 내용은 NRDC, "Known Nuclear Tests Worldwide: 1945-2002." <http://www.nrdc.org/nuclear/nudb/datab15.asp>. (검색일 2007. 8. 8).

12) 예를 들어, 1962년부터 1969년까지 미국 국방부가 진행한 핵무기 개발과 실험에 소요된 연평균 예산은 3억 2천 6백만 달러였고, 1970년대에도 비슷한 수준인 3억 3천 2백만 달러에 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Schwartz(1998, 564)를 참조할 것.

13) 예를 들면 같은 기간에 항공기에 의한 공격에 대비하는 대공방어체제(air defenses)에도 3천 7백억 달러가 소요되었다.

냉전기 여러 차례 진행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시도도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냉전기에 미소 양국이 과잉보유한 전략무기의 파괴력 때문에 양국의 전략 핵무기의 균형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¹⁴⁾ 이러한 문제 때문에 냉전기에 미소 양국이 구축한 전략무기와 그 균형을 평가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권위있는 방법이 그간 부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서로 다른 분석자들이 단순 수치 비교(static measures of weapons' attributes)와 특정 시나리오에 따른 무기의 효과 분석이라는 동태적인 방법(dynamic and scenario-specific)을 자신들의 연구 초점에 따라 각각 이용했던 것이다 (Gray and Barlow 1985, 39).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글에서는 냉전기 양국의 전략무기와 그 균형을 정확하게 측정하려 하지는 않는다. 대신, 미소 양국이 보유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 및 전체 전략핵무기의 개발 추세를 수량의 변화와 함께 비교하고, 이를 미국의 핵전략과 준비태세에 대한 논의와 연계함으로써 양국의 전략 핵공격 능력의 변화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그럼으로써,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로 무엇을 하길 원하였고, 가설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가능한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논의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아래의 표 1은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경쟁의 역사를 양국 능력의 변화하는 맥락에 맞추어 요약한 것이다.¹⁵⁾

표에 정리한 것처럼, 2차 대전 직후에 소련은 1기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못한 반면, 미국은 이미 전쟁 동안 2개의 핵무기를 사용한 바 있었다. 따라서 소련이 당시 세계 최대의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전략적 관점에서 소련은 미국과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Zaloga 2002, 1). 이러한 상황은 소련이 자국 최초의 핵실험을 수행하고 1기의 핵탄두 제작에 성공한 1949년까지 이어졌다(Mearsheimer 2001, 130).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비록 미국이 이 시기에 핵독점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전략적 우위를 실현할 수는 없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당시에 미국은 소련내 목표물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데에 필요한 유효한

14) 당시 양국이 보유한 전략핵무기는 지구를 수차례 파괴하고도 남을 정도였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를 비교하는 것은 양국의 전력을 비교하는 데에 거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15) 냉전기 미소 양국의 핵무기 경쟁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Freedman(1989); Glaser(1990); Ball(1990)을 참조할 것.

표 1. 냉전기 핵무기 경쟁

| | | |
|---|---------|-------------------|
| 미국의 핵독점 | 소련의 핵부재 | 1945~1949 |
| 미국의 패권 | 소련의 무능력 | 1950~1955 |
| 미국의 우세 | 소련의 열세 | 1956~1960년대 중반 |
| 상호 확증 파괴 (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 | 1960년대 중반 이후 냉전종식 |

운반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48년까지 미국이 보유한 운반수단은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도록 변형된 30기의 전략핵폭격기(B-29) 뿐이었는데, 이 폭격기를 사용하더라도 당시의 구식 핵폭탄은 39명이 2일 이상 작업을 해야 조립하여 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조악한 수준이었다(Rosenberg 1983, 14-15).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9년까지는 미국만이 적국을 핵폭탄으로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소련이 최초로 보유한 핵탄두는 전략적 타격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 의미있는 공격을 가할 수가 없었다.¹⁶⁾ 물론 스탈린(Stalin)을 비롯한 소련의 지도자들도 2차대전 종전 이전부터 핵무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지만, 방위산업의 미성숙 때문에 소련의 핵무기 개발은 지연되었다(Zaloga 2002, 3-4).

한국전쟁은 체코슬로바키아, 베를린, 중국 등 다른 지역에서의 냉전의 진행과 맞물려서 재차 미국 방위비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 증대된 예산으로 미국은 1955년까지 소련의 도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많은 숫자의 핵탄두를 축적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미국은 전략 핵탄두 재고와 실전배치 탄두의 숫자를 8배가량 증가시켰다.¹⁷⁾ 1955년까지 소련은 여전히 200기의 전략 작전 능력이 없는 소규모의 핵탄두만을 보유하고 있었다.¹⁸⁾ 따라서 소련이 미국의 1952년 수소폭탄 실험

16) NRDC, "Known Nuclear Tests Worldwide: 1945~2002" 및 "USSR/Russian Nuclear Warheads: 1949-2002." <http://www.nrdc.org/nuclear/nudb/datab10.asp>. (검색일: 2007. 8. 8).

17) NRDC, "U.S. Nuclear Warheads: 1945~2002." <http://www.nrdc.org/nuclear/nudb/datab9.asp>. (검색일 2007. 8. 8) 및 "U.S. Strategic Offensive Force Loadings" 참조. 1949년에 미국은 전략 핵탄두를 235개 보유하고 그 중 200개를 배치했었지만, 1955년에는 그 숫자가 각각 2,200과 1,755로 늘어났다.

18) NRDC, "USSR/Russian Nuclear Warheads: 1949~2002."

에 이어 1953년에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였지만, 이 시기에도 양국간 전략 능력에 있어서 기존의 차이는 변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1956년부터는 양국간 전략적 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소련이 전략 핵무기를 실전배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1956년에 소련의 폭격기들이 전략 핵탄두로 무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소련은 6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을 1958년에, 그리고 2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1960년에 배치하였다.¹⁹⁾ 따라서 이 시기에 소련이 비로소 전략적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미국의 전략 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격하여 파괴하기에 충분한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전략적 우위는 지속되었다. 왜냐하면, 미국은 모든 종류의 핵무기에 있어서 산술적으로 소련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66년에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그리고 폭격기에 설치한 핵탄두의 숫자는 각각 1,004, 1,264, 3,476개였다. 반면 소련은 각각 416, 75, 546개의 핵탄두를 각각 설치하였다.²⁰⁾

1960년대 중반 이래 점증하는 소련의 방위비와 계속되는 핵탄두 비축량의 증가는 양국간 전략적 경쟁관계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이후 냉전이 끝날 때까지 양국은 전략 무기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등한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에 이르러 소련은 충분한 수효의 핵탄두를 장착함으로써 자체의 핵삼각체제(nuclear triad)를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숫자에서 미국을 추월하게 되었다.²¹⁾ 그 결과는 상대방의 보복 공격이 초래할 엄청난 파괴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어느 일방이 상대를 공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즉 양측이 보복공격(second-strike) 능력을 보유하게 되어 상호확증파괴(MAD)의 시대가 도래한

19) NRDC, "USSR/Russian Strategic Offensive Force Loadings." <http://www.nrdc.org/nuclear/nudb/datab2.asp>.(검색일 2007. 8. 8).

20) NRDC, "U.S. Strategic Offensive Force Loadings" 및 "USSR/Russian Strategic Offensive Force Loadings" 참조.

21) 이러한 변화에 따라, 1979년에 소련은 1,395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 993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57기의 전략폭격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미국은 1,054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 656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376기의 전략폭격기를 보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NRDC, "U.S. Strategic Offensive Force Loadings" 및 "USSR/Russian Strategic Offensive Force Loadings" 참조.

표 2. 냉전기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 미국과 소련

| 배치연도 | 미국 | 소련 ²²⁾ |
|------|------------------------------|---------------------|
| 1959 | ATLAS D(1964) ²³⁾ | |
| 1960 | | SS-6 Sapwood(1968) |
| 1961 | ATLAS E(1965) | SS-7 Saddler(1978) |
| 1962 | ATLAS F(1965) | |
| | TITAN I(1965) | |
| | MINUTEMAN I(1975) | |
| 1963 | TITAN II(1987) | SS-8 Sasin(1978) |
| 1965 | | SS-11 Sego(1991) |
| 1966 | MINUTEMAN II(1991) | SS-9 Scarp(1980) |
| 1969 | | SS-13 Savage(1991) |
| 1970 | MINUTEMAN III(현재) | |
| 1975 | | SS-17 Spanker(1991) |
| | | SS-18 Satan(현재) |
| | | SS-19 Stiletto(현재) |
| 1985 | | SS-25 Sickle(현재) |
| 1986 | MX(2005) | |
| 1987 | | SS-24 Scalpel(2001) |

출처: NRDC, *Archive of Nuclear Data from NRDC's Nuclear Program*.

<http://www.nrdc.org/nuclear/nudb/datainx.asp>. (검색일 2007. 8. 9).

것이다.

미사일방어체제는 그 특성상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발전은 냉전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2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미국과 소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다.

22) 여기에 사용된 소련의 미사일 명칭은 서방의 정보기관이 분류의 편의상 부여한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의 분류법에 따르면 'SS'는 미사일의 역할 즉 지대지(surface-to-surface)를 의미하며, 뒤에 이어지는 숫자는 차례로 부여되게 된다. 이와 함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자체적으로 'S'로 시작하는 고유의 별칭을 각 미사일에 부여하였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Zaloga(2002, 249-256)를 참조할 것.

23) 괄호 안의 숫자는 각 미사일이 실전배치에서 제외된 연도를 의미한다.

여기서의 초점은 미사일방어체제가 필요하게 된 전략적 경쟁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양국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과 획득추세를 좀 더 심도있게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⁴⁾ 미국이 최초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아틀라스(ATLAS)-D를 1959년에 배치한 이후, 미국과 소련은 지속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량하고 증강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은 타이탄(TITAN)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1962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했고, 또한 제3세대 미니트맨(MINUTEMAN)-1도 1962년에 실전배치하였다. 아울러 최초로 다탄두각개유도미사일(MIRV: 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 기술을 구현한 미니트맨(MINUTEMAN)-3을 1970년에 배치하였다.²⁵⁾

마찬가지로, 소련은 1950년대 중반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인 SS-6과 SS-7의 제작과 실험에 착수하였고, 1960년과 1961년에 각각 두 기종을 실전배치하였다. 소련은 1966년까지 SS-9와 SS-11 미사일의 배치를 완료함으로써 상당한 규모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의한 공격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여기서 두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미국과 소련은 서로 상대방이 우월한 능력의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전략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적극 노력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소련의 증강되는 공격 능력에 결코 수동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었다. 둘째, 초기의 급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력의 확대 이후에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력을 1966년부터 냉전종결기까지 1,000기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²⁶⁾ 따라서, 비록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에 주도권을 쥐고 초기에 수적 우위를 확보하였으나, 소련이 그 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림 3은 미소 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경쟁을 수량으로 비교해준다.

아래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1969년부터 소련은 미국보다 더 많은 수효의 대륙간

24) 이하의 논의에서 거론되는 구체적인 숫자는 모두 NRDC, *Archive of Nuclear Data from NRDC's Nuclear Program*. <http://www.nrdc.org/nuclear/nudb/datainx.asp>. (검색일 2007. 8. 9)에서 도출한 것임을 밝혀둔다.

25)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특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Schwartz(1998, 134-135) 참조.

26) 1972년에 이뤄진 전략핵무기제한협정(SALT 1: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의 합의에 따라, 미국은 총 1,054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었고, 소련은 1,618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Nitze(1989, 330-331)를 참고할 것.

탄도미사일을 배치하였다.²⁷⁾ 그 결과 1989년에 미국은 총 1,000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대에 2,44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련은 1,379기의 발사대에 총 6,671기의 핵탄두를 배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숫자의 증가가 미소간 핵경쟁에서 소련의 전략적 우위를 보장하지는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 소련처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숫자를 계속 증가시키지 않은 것은 당시 양국간 치열한 경쟁을 고려할 때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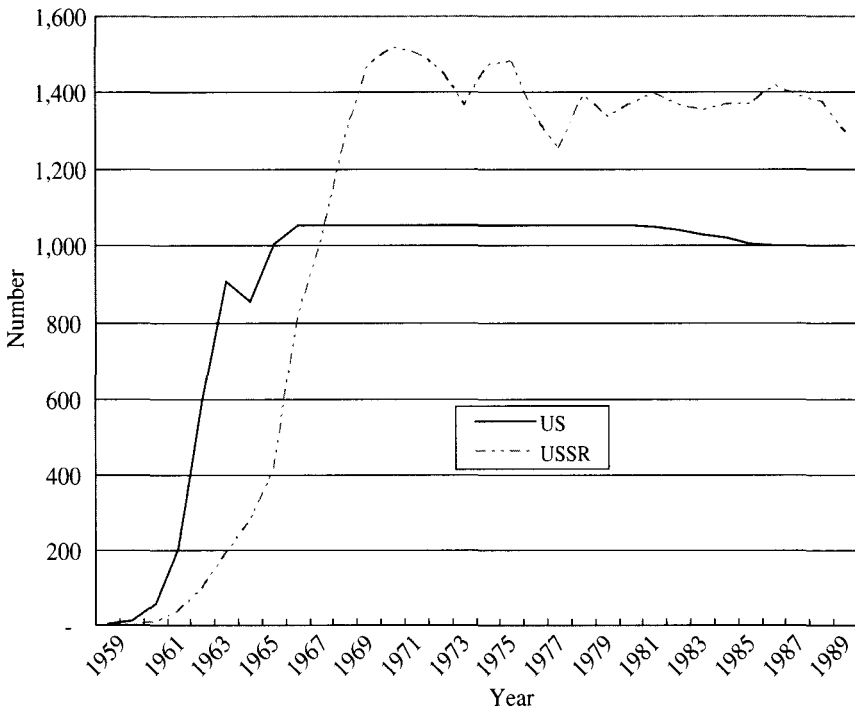


그림 3. 대륙간탄도미사일 균형: 미국과 소련

출처: NRDC, *Archive of Nuclear Data from NRDC's Nuclear Program*.

<http://www.nrdc.org/nuclear/nudb/datainx.asp>. (검색일 2007. 8. 9).

27) 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미국이 이미 다탄두각개유도미사일인 미니트맨-3을 실전배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1975년까지는 양국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배치된 핵탄두의 숫자는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그 이후 소련도 SS-19의 개발과 함께 본격적으로 다탄두각개유도미사일 기술을 실용화함으로써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배치된 핵탄두의 숫자를 급속도로 증가시키기 시작하였다.

한 것은 미국이 자국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력의 확대에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첫째, 미국이 이미 다탄두각개유도미사일 기술의 활용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력의 최적화를 이뤄서 더 이상의 전력 증강이 불필요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²⁸⁾

둘째, 앞의 설명과 연결하여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이외에 다른 전략 공격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설명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미국이 1976년 단일통합작전계획(SIOP: Single Integrated Operational Plan)-5에서 소련과의 전쟁시 전략핵무기로 파괴해야 할 목표 25,000개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요 수단 중의 하나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증강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Ball and Toth 1990, 67). 단일통합작전계획-5는 확산통제(escalation control)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소련내 비군사 시설까지 공격목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력의 확충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전략핵폭격기 등의 다른 운반수단 및 충분히 확보된 핵탄두 재고(1976년에 25,000기 이상)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단일통합작전계획-5에서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숫자를 늘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즉 소련과의 핵 경쟁에 있어서 미국은 이미 활용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4는 어떻게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증가시키지 않고서도 그러한 전력을 갖출 수 있었는지를 드러내준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 여전히 전략핵무기에 있어 소련보다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다양한 공격 방법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²⁹⁾ 사실상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력을 극

28) 1975년까지 미국은 다탄두각개유도 기술이 적용된 미니트맨-2 및 미니트맨-3을 각각 450기와 550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1975년 이후 미국은 배치된 미사일 발사대와 핵탄두의 숫자를 더 이상 늘리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전략무기제한협정(SALT-1)은 발사대의 숫자는 제한했지만, 배치된 다탄두각개유도미사일의 탄두 갯수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

29) 따라서 냉전기에 미국이야말로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잠수함, 전략핵폭격기로 구성된 진정한 의미의 핵삼각체제(nuclear triad)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01년에 부시행정부가 내놓은 핵태세검토(NPR: Nuclear Posture Review)이전에는 이러한 핵삼각체제가 미국의 전략삼각체제(strategic triad)로 기능하였다. 2001년의 핵태세검토에서는 새로운 전략삼각체제가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되었는데, 이는 정밀타격무기(PG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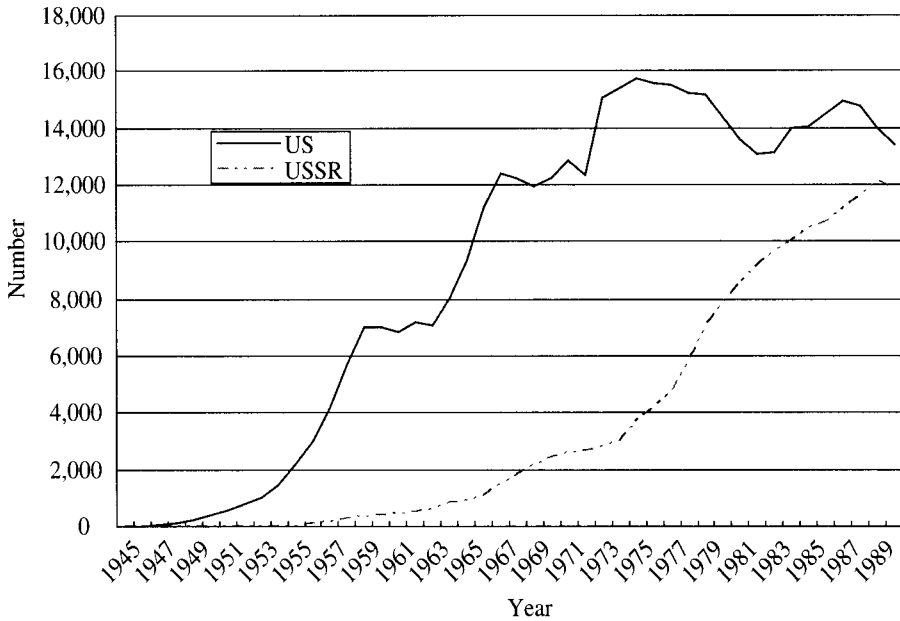


그림 4. 전략핵무기 균형: 미국과 소련

출처: NRDC, *Archive of Nuclear Data from NRDC's Nuclear Program*.

<http://www.nrdc.org/nuclear/nudb/datainx.asp>. (검색일 2007. 8. 9).

대화시키지 않은 데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자체가 상대방의 공격에 고유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³⁰⁾

반면에 소련은 자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력을 극대화해야만 했다. 우선 병참상의 이유와 기타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소련의 전략핵폭격기는 상대적 유용성이 미흡했다.³¹⁾ 또한 소련의 핵잠수함 건설 프로젝트는 1970년대 중반까지도 해결하

recision-guided munitions)를 포함한 재래식 무기, 종합적인 방어능력(미사일방어체제 및 민방위능력: missile and civil defenses), 그리고 전통적인 핵전력의 3요소를 포함한다.

30)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거기에 배치된 핵탄두의 숫자를 줄이려고 진행된 미소(이후 러시아) 양국 간의 일련의 협정, 즉 SALT와 이후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은 미국측의 이러한 우려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보여진다.

31) 미국은 소련을 전략핵폭격기로 공격하고자 할 때, 유럽 및 기타 지역의 공군기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었던 반면에, 소련은 그러한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소련 전략핵폭격기의 전략적 유용성은 미국을 상대해서는 제한적이었던 것이다.

지 못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핵잠수함 자체의 기술적 약점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본격적인 전력 증강에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당시 소련의 기술수준에서는 핵잠수함의 작전범위를 확대하기 힘들었고, 또한 소음감소장치(sound dampener)의 기술 발전도 더뎠다. 아울러 소련의 잠수함은 나토(NATO) 해군의 공격에도 취약하였다. 만약 선제공격을 받는다면 소련의 잠수함은 정박항에서 파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소련 군부도 자국 핵잠수함 전력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력의 증강에 미국보다 더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³²⁾

지금까지의 논의의 함의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비록 양국간 전략무기의 균형을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냉전 초기에 형성된 양국간 경쟁구도, 즉 막대한 자원을 투여한 전략무기를 통해 상대방보다 우위를 점하려는 경쟁은 냉전 전 기간에 걸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따라서 미국 핵전략의 일부로 추진되었던 미사일방어체제의 의미, 즉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로 무엇을 도모하였는지도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염두에 두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하도록 한다.

3) 미사일방어체제와 미국의 핵전략

미어샤이머(Mearsheimer 2001, 60)의 언급처럼, 한 국가의 전략은 적대국가와의 양자관계의 진행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미사일방어체제도 미국이 숙고한 전략적 조치의 하나라고 볼 때, 미국의 핵전략과 관련 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미사일방어체제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작업이다. 물론 혹자는 미국의 전략무기의 발전에 미친 전략 개념과 교리(doctrine)의 영향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Ball 1987, 8).³³⁾ 이런 인식에 따르면, 미국의 핵전략과 핵무기개발의 두 사실 사이에 일관적인 상관관계를 찾는 일은 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³⁴⁾ 그 대신에, 새로운 전략적 도전과 대안을

32) 소련 핵잠수함 전력의 한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Zaloga(2002, 115-118; 153-159)를 참조할 것.

33) 이러한 볼(Ball)의 주장은 Ball(1983)에 보다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34) 특히, 볼은 미국의 방어체제는 공격무기의 개발/발전과 개념적 연관성이 없이 추진되었다고 주장한다. Ball(1987, 10)을 참조할 것.

창출했던 기술적 변화와 핵무기의 확장을 주도했던 관료정치(bureaucratic politics)의 두 요인이 미국의 핵전력의 증강을 이끌었다는 것이다(Rosenberg 1983, 10-11; Halperin 1972).

하지만 카플란(Kaplan 1983)이 지적했듯이 미국의 핵전략은 다양한 전략적 사고와 개념의 도움으로 핵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략적 계산의 산물인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그런 중요한 안보이슈가 뚜렷한 지침의 도움없이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일례로 레이건(Reagan) 행정부의 전략무기 현대화계획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우선 전략적 목표가 설정된 이후에 목표 수행에 필요한 무기를 확보하는 획득정책이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Richelson 1983, 131-133). 따라서 미사일방어체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핵독점 시기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미국은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를 해야만 했다. 물론 소련이 핵전력을 갖추기 이전에도 맹아적 형태의 핵전략의 개념이 미국에 존재하였던 것도 사실이다.³⁵⁾ 이런 초기의 사고는 핵전쟁이 초래할 불가피한 파괴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핵전쟁의 발발을 '억지'(deterrence)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칸(Kahn 1962)의 유명한 언급(Thinking about the Unthinkable)이 시사하듯이, 핵전쟁은 결코 미국의 핵전략의 핵심에서 배제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냉전기에 미국의 핵전략은 국내외 정치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억지와 핵전쟁에서의 승리라는 양극의 연장선 상에서 움직였다. 미국이 당면한 딜레마는 실제로 억지가 핵시대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었지만, 동시에 핵공격 능력을 계속적으로 확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³⁶⁾

부연하자면, 그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은 만약 핵억지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억지란 보복의 위협에 기반한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건, 상대방이 그런 위협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억지가 실패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비록 핵무기는 대규모의 파괴능력 때문에 신뢰할만한 억지효과

35) 예를 들자면 Brodie(1946) 등이 있다.

36) 미어샤이머는 이런 딜레마가 더 이상의 공격용 무기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강대국이 적국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공격능력을 계속 확충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주장한다(Mearsheimer 2001, 224-233).

를 발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핵무기가 무기의 기능과 용도에 기반하여 비용(cost) 대비 이득(benefit)을 계산하는 국가의 행태를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핵무기는 애초에 미국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 개발한 것이지,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Freedman 2004, 12). 따라서 미국의 적국이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점을 고려해야 했던 것이다.

둘째, 핵억제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도 미국은 계속적으로 대규모의 확실한 핵공격능력을 유지해야만 했다. 따라서 소련이 핵공격능력을 갖추게 된 후 미국은 소련의 가상 선제공격 이후에도 생존가능한 충분한 공격무기를 보유하길 원했다. 문제는 소련의 핵무기는 계속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충분한 잔존 공격무기를 보유하기 위해서 미국은 핵무기의 규모를 더욱 늘려가야만 했던 것이다. 궁극적으로 소련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기가 필요했는지를 결정할 절대적인 기준은 부재했다.³⁷⁾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결과는 양국의 끊임없는 핵무기 개발 경쟁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에서 기인한 군비경쟁(arms race)의 전형적인 실례라고 할 수 있다.³⁸⁾

물론, 미국의 핵독점 시기에는 구체적인 핵전략이 불필요했다. 따라서 냉전 초기 미국의 핵무기 운용계획에 대한 논의는 2차대전에서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여겨진 전략 폭격(strategic bombardment)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다(Ball 1990; Freedman 2003, Kaplan 1983; Rosenberg 1983; Sagan 1987). 1950년 이전에도 핵무기의 역할에 대한 검토는 있었으나, 당시에 핵무기 사용과 관련하여 유일한 공식적인 지침을 제시한 국가안보회의(NSC) 30호 문서는 구체적인 제안없이 단순히 미국이 교전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반드시 되어있어야 하고, 핵무기의 사용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에 의해서 내려져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Rosenberg 1983, 13).³⁹⁾

37) 미국 내 분석가들 사이에 이 기준을 찾기 위한 매우 다양한 노력과 접근법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핵무기의 규모는 대부분 정치적/전략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Enthoven and Smith(2005) 참조. 소련을 절멸시킬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핵무기의 유용성에 대한 질문은 거의 무시되었다.

38) 안보딜레마의 논리와 함의에 대한 설명은 Jervis(1978) 참조.

39) NSC-30에서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U.S. Department of State, "NSC-30, United States

1950년대에는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 전략이 수립되었다.⁴⁰⁾ 1950년에 트루만은 핵무기의 목적과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나온 국가안보회의 68호 문서는 냉전기 미국의 핵전략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미국의 종합적인 핵무기 운용계획의 지침이 되기에는 부족하였고, 단지 핵무기의 급속한 증가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Ball 1987, 9-10).⁴¹⁾ 1956년의 국가안보회의 5602/1호 문서는 핵무기가 전면전(general war) 또는 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s)시 대통령의 재가에 의해 사용될 것임을 다시 확인하였다.⁴²⁾ 이 문서는 무력갈등의 전면전으로의 비화를 막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지만,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Rosenberg 1983, 42).⁴³⁾ 즉 이때까지 미국의 핵무기 사용 계획은 구체적인 지침보다는 대량살상이라는 핵무기 자체의 위력에 기반한 전통적인 개념에 기반하고 있었다.⁴⁴⁾

냉전 초기에 유지된 핵무기의 비차별적 사용이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Policy on Atomic Warfare,” (September 10, 1948),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1948, Vol. 1., Part 2, General: The United Nations*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624-628, 특히 자료의 12번째, 13번째 문단을 참조할 것.

40) 이전의 미국의 핵전쟁 계획 즉 PINCHER(1946), FLEETWOOD(1948), DROPSHOT(1949) 등은 모두 소련의 도시와 산업시설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Richelson 1983, 126-127).

41) NSC-68은 미국의 핵무기가 소련의 전략적 사고에 상당한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실제로 미국의 핵무기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 NSC-68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May(1993) 참조. NSC-68의 준비에 이르게 된 미국의 정치/군사적 고려에 대한 분석은 Wells(1979)를 참조할 것.

42) NSC-5602/1의 11번째 문단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핵무기를 기존의 다른 무기와 통합시키는 것이 미국이 정책이다. 핵무기는 전면전과 전면전에 이르기 전(short of general war)인 군사작전에서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사용될 것이다. 사전에 가능한 그런 재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U.S. Department of State, “NSC 5602/1, Basic National Security Policy,” (March 15, 1956), *FRUS, 1955-57, Vol. XIX*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246을 참조할 것.

43) NSC-5602/1의 14번째 문단은 다소 모호하게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전면전을 억제한다는 핵심 목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미국은 반드시 군사력의 일부로서 유효한 핵 보복 능력을 개발/유지해야 하고, 소련으로부터의 대규모(기습공격을 포함하여) 공격으로부터 그 능력을 보호해야 한다.” NSC 5602/1, Basic National Security Policy,” 246을 참조할 것.

44) 이 시기 미국의 핵전략에 대한 분석은 Rosenberg(1983) 및 Rosenberg(1986) 참조.

영향받은 바 크다. 첫째, 당시 미국은 소련내의 목표물을 선별적으로 공격할만큼 충분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핵무기는 운반에 있어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Rosenberg 1983, 16). 둘째, 비전투원인 일반 국민을 목표로 하는 것은 2차대전에서 드러났듯이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데에 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략으로 믿어졌다(Richelson 1983, 126). 마지막으로 전쟁시에 파괴되어야 할 소련내 군사목표의 대부분은 대도시근처에 위치해 있었고, 미국은 이들을 민간시설과 구분하여 효과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기술적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Richelson 1983, 126-127).

그러나, 소련이 핵공격능력을 확충하기 시작함에 따라, 미국은 구체적인 핵무기 사용계획을 만들기 시작했다. 1960년대 초반부터 냉전이 끝날때까지, 그런 계획은 공식문건인 단일통합작전계획(SIOP)의 형태로 준비되었다.⁴⁵⁾ 단일통합작전계획은 사실상 공식적인 미국의 전략핵전쟁계획이었다. 계획은 첫째, 핵전쟁시에 공격할 목표물의 목록, 둘째, 미국의 전체 전략핵무기를 다양한 목표물에 배정하는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지정된 목표물을 향해 해당 핵무기를 운반할 방법 등을 명시하였다(Ball and Toth 1990, 65, 각주 1).

이러한 핵무기 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대군사타격(counterforce strike)과 미사일방어체제는 행정부에 상관없이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던 대안 중의 하나이다.⁴⁶⁾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군사타격이나 미사일방어체제는 둘 다 소련과의 핵전쟁에서 불가피하게 생길 미국의 피해를 줄이도록 할 수 있었다.⁴⁷⁾ 두

45) 2003년에 단일통합작전계획은 작전계획(OPLAN: Operations Plan)-8044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당시 존재했던 단일통합작전계획-03은 '보다 유연하고(flexible), 상황에 맞는(situation specific), 통합적인(family of) 계획'에 합쳐지게 되었다. 이 계획은 보다 적응성있는(adaptive) 계획의 수립을 강조한다. 이후부터, 미국의 핵무기 사용계획은 작전계획-8044 개정 회계연도(OPLAN-8044 Revision FY)의 형태로 공식 수립되게 된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 대해서는 USSSTRATCOM(U.S. strategic command) Action Processing Form, Subject: CINCSTRAT Memo to CJCS regarding Renaming the SIOP, August 3, 1992, J000. http://www.nukestrat.com/us/stratcom/97-64h_STRATCOM080392.pdf. (검색일 2007. 8. 12). 참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ans M. Kristensen, "U.S. Changes Name of Nuclear War Plan." <http://www.nukestrat.com/us/stratcom/siopname.htm>. (검색일 2007. 8. 12) 참조.

46) 대군사타격(counterforce strike)은 상대방의 전략핵무기를 공격할 수 있는 핵전쟁능력을 의미하는 반면, 대가치타격(countervalue strike)은 상대방의 도시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격한다는 의미이다.

47) 하지만, 대군사타격은 일종의 역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군사타격이 적국의 핵무기를 성공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확하고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거나 아니면 대량의 무기의 동시사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군사타격무기는 한편으로 매우 효과적

대안이 각각 공격과 방어의 측면에서 보완적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수 있었다.

둘째, 효율적으로 구축된 대군사타격능력은 미국에 또 다른 이점을 제공하였다. 미국의 대군사타격은 나토동맹국들에게 대가치타격보다 미국의 개입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여줌으로써, 나토동맹국들의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감소시켰으며, 따라서 미국으로 하여금 지역 내에서 불필요한 군비경쟁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Kaplan 1983, 217-219).⁴⁸⁾ 또한, 대군사타격은 대가치타격보다 상대방 국가의 국민에게 주는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대가치타격보다 도덕적이고⁴⁹⁾ 대중적으로 정당화하기 쉬울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였다.⁵⁰⁾

마지막으로 미사일방어체제는 미국 핵무기의 생존율을 제고시켜 미국의 보복핵 공격(second strike)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의 억지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Ball 1987, 7-8). 바로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여러 행정부에 걸쳐 변화된 미국의

인 선제핵공격(first strike) 무기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위협을 강하게 느끼게 되어 위기시 상대방에 의한 선제핵공격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즉, 미국의 대군사타격능력의 구축은 미소 양국간 핵무기경쟁만을 촉발시킨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핵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Wagner(1991)를 참조할 것.

48) 냉전기간에 유럽에는 소련과 서유럽국가들 사이에 재래식무기의 불균형(conventional power imbalance)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소련의 공격에 대응하는 핵무기사용의 위협을 통해 억지력을 확보하려 하였다. 서유럽을 위한 이러한 핵우산은 '핵선제불사용(no-first-use)' 원칙과 서유럽방어를 위한 미국의 약속의 신뢰도 등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Betts(1985) 및 Mearsheimr(1984/5)를 참조할 것.

49) 핵무기 사용의 도덕적 측면에 대해서는 Walzer(2000, chap. 7) 및 Finnis, Boyle, and Grisez(1987)를 참조할 것.

50) 핵무기 사용의 도덕성을 고려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또 하나 있다. 카플란(Kaplan)이 주장하듯이, 핵무기 사용의 도덕적 판단은 간단하지 않다. 대가치타격은 일견 대군사타격보다 더 비도덕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민간인의 대량살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가치타격의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실제로 대가치타격이 수행될 가능성은 극히 적어지게 되고 대가치타격은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의되는 개념에 머물게 된다. 반면, 일견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대군사타격은 근본적으로 실제적인 선제핵공격(first strike)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핵전쟁으로의 문을 열어놓게 된다. 즉 대군사타격과 대가치타격의 도덕적 측면을 단순비교하기는 극히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Kaplan(1983, 299)를 참조할 것.

표 3. 미사일방어체제와 미국의 핵전쟁계획

| 미사일방어체제 | 방어목표물/대상 | 적국 대륙간탄도미사일 | 공개 핵정책 | 핵무기 사용계획 |
|--------------------------------|--|----------------------|---|------------|
| 나이키제우스 (1958) | 전략항공기지/ 소련 미사일 | 없음 | 대량보복 (Massive retaliation) | NSC 5602/1 |
| 나이키엑스 (NIKE-X) (1963) | 민방위/ 소련 미사일 | 99(소련) 유연반응 | (Flexible response) | SIOP-63 |
| 센티널 (1967) |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지/ 소련 및 제3국의 미사일 | 818(소련) | 확증파괴 (Assured destruction) | SIOP-4 |
| 세이프가드 (SAFEGUARD) (1969) |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지/ 소련의 미사일, 민방위/ 제3국 미사일 | 1,274 (소련) | 확증파괴 (Assured destruction) | SIOP-4 |
| 전략방위구상 (SDI) (1983) | 3,500 개 지점/ 소련의 미사일 | 6,660(소련), 20(중국) | 장기핵전쟁에서의 승리 (Prevailing in a protracted nuclear war) | SIOP-6 |

공개 핵정책 (declaratory nuclear policy) 에도 불구하고 대군사타격과 미사일방어체제는 미국의 핵무기 사용계획의 근간에 자리하게 되었다.

표 3은 미사일방어체제가 필요한 전체적인 배경이 되었던 미국의 공개 핵정책과 시기별로 변화한 미국의 핵전쟁대비태세를 보여주는 핵무기 사용계획을 요약한 것이다. 미국은 냉전기간에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를 다섯 차례 하였고, 그 각각은 미국 국가안보에 고유의 전략적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⁵¹⁾ 아래에서 미국의 전략과 핵무기 사용계획과 관련하여 각 미사일방어체제가 지닌 함의를 설명함으로써 미사일방어체제 추진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는 검토하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련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배치하기 이전부터 미국은 대

51) 각각의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Baucom(1992): Adams(1971) 및 Yanarella(1977)를 참조할 것.

륙간탄도미사일 배치와 더불어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상하고 있었다. 1958년 1월에 당시 미국방장관이었던 맥클로이(Neil H. McElroy)는 육군의 주도하에 미사일방어체제를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Baucom 1992, 11). 이것은 사실상 1957년에 있었던 소련의 스푸트니크(Sputnik)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이었다.⁵²⁾ 예를 들자면, 1957년 11월 7일에 아이젠하워(Eisenhower)에게 제출된 게이터위원회(Gaither Committee: the Security Resources Panel of the Science Advisory Committee of the Office of Defense Mobilization)의 특별보고서는 소련이 2년 내에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어 미국 전략무기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Kaplan 1983, 141-142). 이것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미국 국가안보정책의 근간이었던 대량보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략무기의 중추였던 전략핵폭격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미사일방어체제는 그런 목적을 위해 추진되었다(Baucom 1992, 9; Adams 1991, 34).⁵³⁾

이러한 전략적 고려 때문에 나이키제우스는 게이터위원회 보고서 권고에 기반하여 미국 대중보다는 전략공군사령부(SAC: U.S. strategic air command) 산하 항공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Adams 1971, 26). 즉, 나이키제우스는 소련에 대하여 미국의 전략적 준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추진되었던 것이다. 나이키제우스와 관련된 이러한 전략적 고려는 나이키엑스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았고, 이후 세이프가드가 실전배치될 때까지도 미사일방어체제의 추진을 위한 중요한 설득논리로 역할을 하였다.

1961년 1월에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케네디는 국방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Baucom 1992, 17; Ball 1986, 62-67). 케네디는 대통령선거 유세당시부터 미국공격력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었기 때문에, 재검토 대상에 미사일방어체제가 포함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Kaplan 1983, 248-250). 케네디행정부는 새로운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나이키제우스의 여러 한계를 극복한 나이키엑스를 추진하기

52) 물론 나이키제우스 체제의 타당성 검토작업(feasibility study)은 소련의 실험 이전인 1956년에 종료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Adams(1971, 24)를 참조할 것.

53) 로젠버그(Rosenberg)는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아이젠하워는 당시에 전략항공기들의 지상에서의 생존율을 높이기보다는 전술적 경보시간을 길게 확보하고 대응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소련의 기습공격시에 전략항공기들이 미리 공중에 떠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Rosenberg(1983, 48) 참조.

로 결정하였다(Baucom 1992, 18-19).⁵⁴⁾ 이 당시 미국의 공개 핵정책은 '대량보복' 으로부터 '유연반응'으로 전환되었다. 기존의 '대량보복' 전략은 소련의 서유럽 침공에 대하여 전면적인 선제핵공격(all-out preemptive first strike)를 요구했던 반면, '유연반응' 전략 및 그에 따르는 핵무기 사용지침을 제공한 단일통합작전계획-63은 소련내 목표물의 타격 우선순위를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핵무기의 사용의 현실성을 증가시켰다(Kaplan 1983, 263-285).⁵⁵⁾

단일통합작전계획-63은 기본적으로 핵전쟁이 미국에 초래할 파괴를 줄이기 위해 소련에 대하여 대군사타격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실제로 대군사타격 피해제한(counterforce damage limiting)은 당시에 단순한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⁵⁶⁾ 1962년말까지 소련이 보유한 실질적 의미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36기에 지나지 않았다. 1963년에도 소련은 99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만을 보유한 반면, 미국은 597기의 실전배치 대륙간탄도미사일, 160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055기의 전략핵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었다.⁵⁷⁾ 즉, 미국의 선제 대군사타격은 실제로 소련의 보복공격(second strike)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이다(Ball 1986, 66).

따라서 선제 대군사타격과 더불어 미사일방어체제는 미국내 피해제한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대군사타격이 소련의 핵무기를 발사 이전에 파괴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 미사일방어체제는 선제공격을 피하고 발사된 무기가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 이전에 파괴함으로써

54) 나이키제우스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다. 우선 나이키제우스는 실제 탄두와 교란체(decay)를 식별할 수가 없었다. 또한 나이키제우스는 핵폭발의 위력으로 목표물을 파괴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그 핵폭발의 위력 및 효과에 대해서는 정보가 미약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어체제 자체가 대규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

55) 단일통합작전계획-63은 소련의 전략 무기체제(항공기지, 미사일발사기지, 잠수함기지)가 미국 핵공격의 우선적이고 최초의 목표라고 명시했다. 만약 전쟁이 그 수준을 넘어서 확산되는 경우, 방공체제 및 궁극적으로 소련의 도시들을 포함한 다른 목표물이 타격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56) 이러한 피해제한의 개념은 1950년대에 랜드(RAND)연구소의 분석가들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고, 단일통합작전계획이 1960년에 처음 공식화되면서 그 계획에 편입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Rosenberg(1983, 58-62) 참조할 것.

57) NRDC, "U.S. Strategic Offensive Force Loadings."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Kaplan 1983, 321). 이 외에도 중국이 1964년에 최초의 핵실험을 실시하고, 소련이 1966년에 모스크바주위를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인 갈로시(GALOSH)를 배치하였기 때문에, 케네디의 뒤를 이은 존슨행정부가 나이크엑스의 민방위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크엑스의 개발을 위한 추진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Baucom 1992, 27-33; Mitchell 2000, 6-7).

하지만, 1964년부터 미국의 공개정책은 달라진 전략적 환경에 맞추어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확증파괴(assured destruction)’ 정책으로 재조정되어 나타났다. 확증파괴란 미국이 적국으로부터의 치밀하고 기습적인 선제공격이 감행된 후에도 적국을 하나의 사회로 기능하지 못할 정도로 절멸시킬 수 있는 보복공격 능력을 보유한다는 의미였다(Ball 1990, 91). 앞서 논의한 것처럼, 이 시기에 소련의 수적 핵열세는 적극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 확충에 따라 급속도로 보완되고 있었다.⁵⁸⁾ 쿠바미사일사태 이후에 소련은 미국의 핵우위를 명백하게 인식하였다. 따라서 소련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대규모로 증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Kaplan 1983, 305). 그 결과 1967년에 소련은 818기의 실전배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 중에는 미국의 주력 기종인 미니트맨에 대응하는 514기의 SS-11이 포함되어 있었다.⁵⁹⁾

이러한 증강된 소련의 전략공격능력 때문에 1963년에 존슨에게 제출된 대통령 지침(DPM: Draft Presidential Memorandum)은 핵전쟁의 수행보다는 억지를 강조하였다(Kaplan 1983, 317). 이어서 1964년의 대통령지침(DPM)에서는 미국이 자국피해를 제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었다(Kaplan 1983, 325-327). 이런 문제때문에, 1965년에 당시 국방장관 맥나마라(McNamara)는 미국이 소련의 파괴(산업시설 절반과 국민 4분의 1의 피해)를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공격력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Baucom 1992, 23). 이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은 1967년까지 전략핵폭격기를 대폭 줄이고(1963년의 절반수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핵탄두를 656기까지 늘리는 한편, 강화격납고(hardened silos)에 배치된 1,054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분산 배치하는 변화

58) 표 1, 2 및 그림 3을 참조할 것.

59) NRDC, “USSR/Russian Strategic Offensive Force Loadings.”

를 도모하였다.⁶⁰⁾

하지만, 비록 선제 대군사타격의 강조가 현저히 약화되었지만, 미국이 피해제한의 개념을 전략핵무기의 임무에서 완전히 제외시킨 것은 아니었다. 1966년에 준비되어 1976년까지 유지되었던 단일통합작전계획-4는 유연반응을 위한 대군사타격의 목표물 우선순위를 규정하였던 단일통합작전계획-63의 사실상 직접 계승이었다(Burr 2005, 41). 두 지침의 유일한 차이는 단일통합작전계획-4에서는 보복 대군사타격(second-strike counterforce)이 보다 강조되었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르면, 미국 핵정책의 기본목표는 보복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된다.

이에 1967년 11월에 또 하나의 미사일방어체제인 센티널(SENTINEL)의 추진이 선언되기에 이른다(Baucom 1992, 36). 소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도시들을 보호하려는 시도였던 나이키엑스와는 달리 센티널은 소련의 공격으로부터 미국 미니트맨 미사일기지를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⁶¹⁾ 근처의 논리는 센티널이 소련의 방어를 관통할 수 있는 공격능력을 미국이 확보할 수 있도록 방어망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련의 결정적 선제핵공격을 배척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Adams 1971, 166-167). 센티널은 또한 중국이 개발중이었던 초기단계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로서도 기능할 수가 있었다(Baucom 1992, 37).⁶²⁾

1969년에 새로 출범한 닉슨행정부는 국방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동년 3월 14일에 닉슨행정부는 새로운 세이프가드(SAFEGUARD) 미사일방어체제가 배치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Adams 1971, 194). 이 조치는 함께 검토되었던 다른 대안들을 고려한 후 내려진, 미국이 신중한 단계를 거쳐 결국은 미사일방어체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결론에서 비롯된 것이다.⁶³⁾ 세이프가드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였

60) NRDC, "U.S. Strategic Offensive Force Loadings."

61) 하지만, 비록 센티널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지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는 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실제로 예정된 15개의 미니트맨 기지 중 10곳이 미국의 대도시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Adams(1971, 177)을 참조할 것.

62) 실제로, 당시 소련과의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무기통제협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은 센티널과 관련하여 소련의 부정적 대응의 촉발을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은 센티널 추진결정을 공표하면서 증가하는 중국의 위협을 대신 강조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대해서는 McNamara 1967, 443-451을 참조할 것.

다. 첫째, 소련의 공격으로부터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보호. 둘째,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미국민 보호. 마지막으로, 우발적인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사실상 이 목표는 센티널과 큰 차이가 없었다(Adams 1971, 198-199).

센티널을 세이프가드로 재조정하는 결정은 당시 미국의 세 가지 전략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첫째, 닉슨행정부의 공개핵정책(확증파괴)과 핵무기사용계획(단일 통합작전계획-4)이 시사하듯이, 미국은 적국이 미국과 미국의 우방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척할 수 있는 충분한 전략공격능력을 보유하길 원했다(Baucom 1992, 41; Yanarella 1977, 174-175). 둘째, 당시 미국의 기술수준으로 소련이 보유한 대규모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 방어망의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⁶⁴⁾ 미국은 오히려 소련을 불가피하게 자극함으로써 소련의 공격력의 확대를 촉진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했다. 미국의 도시가 아니라 미사일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망임을 강조했던 이유는 소련이 이를 미국의 선제핵공격 이후 약화된 소련의 보복핵공격으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련의 선제핵공격으로부터 미국의 보복핵공격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 해주길 원했기 때문이다(Baucom 1992, 42).⁶⁵⁾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한적인 미사일방어체제는 당시 진행되던 소련과의 군비감축대화의 협상과정에서 어느 정도 미국의 입장을 강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Baucom 1992, 53-54).

이러한 전략적 고려에도 불구하고, 1972년에 맺어진 반탄도미사일협정(ABM: Anti-Ballistic Missile treaty)과 1974년의 의정서에서 부과한 제한조치는 세이프가드가 소련의 대규모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한 미국 본토 방어망으로 기능할 수가 없게 하여 세이프가드의 유용성을 근본적으로 제한하였다.⁶⁶⁾ 또한 세이프

63) 같이 검토되었던 세 개의 대안은 첫째, 소련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보다 전면적인 미사일방어체제, 둘째, 센티널 배치, 마지막으로 미사일방어체제의 무기한 보류였다. 전면적인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은 불가능해보였고, 무기한 보류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도 예상되었기 때문에 닉슨은 대안들을 거부하였다.

64) 소련은 이미 1969년에 1,274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다.

65) 실제로, 이전의 센티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도시의 방어라고 이해될 수 있었던 반면, 세이프가드는 근본적으로 두 개의 미니트맨 기지를 방어하도록 추진되었고 유일하게 방어망에 포함되는 대都市는 워싱턴뿐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Adams(1971, 200)을 참조할 것.

66) 반탄도미사일협정은 1972년 5월 25일에 모스크바에서 체결되어 미 상원이 동년 8월

가드는 그 구조상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어망으로 기능하기도 힘들었다. 왜냐하면, 셰이프가드는 원래 특정 기지를 보호하기 보다는 소규모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지역 방어의 개념을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었다(Baucom 1992, 91-95). 이런 문제 때문에 셰이프가드는 1976년에 완전히 취소되었고, 이후 전략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이 구체화하기 이전까지 미사일방어체제는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유명무실한 단순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만 남게 되었다(Baucom 1992, 99-100).

1983년에 레이건(Reagan)은 전략방위구상이라 명명한 새로운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 언급은 1981년에 레이건이 집권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미국 전략무기 체제 현대화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6년 내에 B-1 전략핵폭격기를 재배치하고 다탄두핵미사일(MX)를 배치함으로써 전략핵무기를 증강시키게 되어 있었다(Baucom 1992, 176; Richelson 1983, 133-136). 레이건의 국가안보명령(NSDD: 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13에 의해 시작된 이 현대화계획은 '장기핵전쟁에서의 승리' (prevailing in a protracted nuclear war)를 강조하고, 소련과의 핵교전 중 어떤 단계에서도 소련의 지휘명령체계(command and control system)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이 보유할 것을 요구하였다(Ball and Toth 1990, 68-69).

1983년에 소련은 SS-18 및 SS-19과 같은 다탄두각개유도미사일(MIRVed) 2,000기 등을 포함한 6,600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제 대군사타격은 일단 가능하지 않았다(Posen and Van Evera 1983, 25). 이런 관점에서 레이건행정부는 소련의 선제 핵공격이후 소련을 무장해제(disarm)시킬 수 있는 보복 대군사타격(second-strike counterforce) 능력의 증대를 도모하였다(Posen and Van Evera 1983, 26).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주공간에 위치한 미사일방어체제는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취약성을 보완해주는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3일에 비준하였고, 10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협정은 양 측에 각 2개의 미사일방어 기지만을 허용하는 제한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1974년에 미소 양측이 합의한 수정의정서는 1976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의정서는 양국의 수도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지 중 단 1곳에만 미사일방어기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강화하였다. 협정과 수정의정서의 내용에 관해서는 Lindsay and O'Hanlon(2001, Appendix A, 169-180)을 참조할 것.

(Baucom 1992, 177).

여전히 주의해야 할 것은 레이건행정부 시절의 전략방위구상이 미국이 공격을 포기하고 방어만을 전폭적으로 추진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전략방위구상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공격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소련보다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군비확충과 함께 추진되었다(Posen and Van Evera 1983, 3). 실제로 레이건도 이러한 전략방어 프로그램의 복잡한 특성을 인식해서, “만약 공격체제와 연결된다면, 이러한 방어체제도 공격적 정책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Ball 1987,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소련보다 우위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전략방위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III. 맺음말

앞에서 미국이 냉전기에 추진했던 미사일방어체제를 당시 미국의 전략적 고려를 염두에 두고 논의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함의가 도출된다. 미국의 여러 차례에 걸친 미사일방어체제 추진은 미국의 포괄적 핵전략 및 핵무기사용계획과 관련되어서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방어할 적국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존재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적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너무 많아 효과적인 방어망구축이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방어망의 구축을 추진하였다. 미사일방어체제의 배경에 대한 이해없이 이를 단순한 방어망으로 간주하는 분석으로는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제대로 다루기가 힘들다.

나이키제우스가 추진될 당시에 소련의 전략공격능력은 매우 미약했으므로, 미국은 공수에서 모두 소련에 우위를 점하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다. 소련이 실질적인 전략공격능력을 보유하게 된 이후에 추진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인 나이키엑스, 센티널, 세이프가드, 그리고 전략방위구상 이 모두는 미국의 전략공격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 후자의 경우, 효과적인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한다면 미국은 준 선제핵공격(quasi first strike) 능력을 확보하거나, 확실한 보복핵공격능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실제로, 미국이 수립했던 일련의 핵무기사용계획들은 미국이 선제핵공격(preemptive first strike)을 염두에 두고 있었

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습 선제공격이 아닌 상황에서는 소련의 전략무기를 목표로 발사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이미 발사되어 비어있는 소련의 격납고나 기지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Richeslon 1983, 143).

한편으로 미국은 실제로 보복공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보다 훨씬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일련의 핵정책(대량보복, 유연반응, 피해제한, 확증파괴, 장기핵전쟁에서의 승리)들은 미사일방어체제가 동반될 때 비로소 구체적 실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었다. 여러 차례의 미사일방어체제가 미국 본토와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점이 부족하다고 거듭 드러났음에도 미사일방어체제가 미국을 위해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국제전략적 고려만이 미국이 추진했던 미사일방어체제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냉전의 종결이후 일견 지속적으로 미국에 유리하게 유지된 전략적 환경 속에서도 클린턴은 미사일방어체제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던 반면,⁶⁷⁾ 뒤를 이은 부시는 미사일방어체제를 적극 추진하여 실전배치의 단계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미국 국내 자원의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합의의 유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미국이 냉전기 미사일방어체제를 추진했던 전략적 고려 즉 국제적인 요인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여, 미사일방어체제는 미국의 핵공격능력 확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국내적 요인 즉 국내정책적 합의와 미사일방어체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는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Adams, Benson D. 1971. *Ballistic Missile Defense*. New York: American Elsevier Publishing Company.

Ball, Desmond. 1983. *Targeting for Strategic Deterrence*.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67) 1998년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발사실험에도 불구하고, 클린턴행정부는 미사일방어체제의 추진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가 외부의 위협에 대한 방어라는 단순 논리가 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Strategic Studies.

- _____. 1987. "U.S. Strategic Concepts and Programs." Samuel F. Wells, Jr. and Robert S. Litwak, eds. *Strategic Defenses and Soviet-American Relations*. Cambridge: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 _____. 1990. "United States Strategic Policy since 1945: Doctrine, Military-Technical Innovation and Force Structure." Carl G. Jacobsen, ed. *Strategic Power: USA/USSR*. New York: St. Martin's Press.
- Ball, Desmond, and Jeffrey Richelson, eds. 1986. *Strategic Nuclear Targeting*.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Ball, Desmond, and Robert C. Toth. 1990. "Revising the SIOP: Taking War-Fighting to Dangerous Extremes." *International Security* 14, No. 4, 65-92.
- Baucom, Donald. 1992. *The Origins of SDI, 1944-1983*.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 Betts, Richard K. 1985. "Compound Deterrence vs. No-First-Use: What's Wrong is What's Right." *ORBIS: A Journal of World Affairs* 28, No. 4, 697-718.
- Brady, Linda P. 1990. "The Economic Dimension of Defense: the United States." Carl G. Jacobson, ed. *Strategic Power: USA/USSR*. New York: St. Martin's Press.
- Brodie, Bernard, ed. 1946. *The Absolute Weapon: Atomic Power and World Order*.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 Burr, William. 2005. "The Nixon Administration, the "Horror Strategy," and the Search for Limited Nuclear Options, 1969-1972: Prelude to the Schlesinger Doctrine." *Journal of Cold War Studies* 7, No. 3, 34-78.
- Department of Defense. 2001. *Nuclear Posture Review*. Submitted to Congress on December 31. (<http://www.globalsecurity.org/wmd/library/policy/dod/npr.htm>).
- Department of State. 1976. "NSC-30, United States Policy on Atomic Warfare," (September 10, 1948),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8, Vol. 1, Part 2, General: The United Nations*.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Department of State. 1990. "NSC 5602/1, Basic National Security Policy" (March 15, 1956).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5-57, Vol. XIX*.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Enthoven, Alain C., and K. Wayne Smith. 2005. *How Much is Enough? Shaping the Defense Program, 1961-1969*. Santa Monica: RAND.
- Finnis, John, Joseph Boyle, and Germain Grisez. 1987. *Nuclear Deterrence, Morality and Re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reedman, Lawrence. 2003.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3rd Edi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Freedman, Lawrence. 2004. *Deterrence*. Malden, MA: Polity Press.
- Gaddis, John Lewis. 1997. *We Now Know: Rethinking Cold War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addis, John Lewis. 2005.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arthoff, Raymond L. 1994. *Détente and Confrontation: American-Soviet Relations from Nixon to Reaga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Glaser, Charles L. 1990. *Analyzing Strategic Nuclear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oldfischer, David. 1993. *The Best Defense: Policy Alternatives for U.S. Nuclear Security from the 1950s to the 1990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Gray, Colin S., and Jeffrey G. Barlow. 1985. "Inexcusable Restraint: The Decline of American Military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10, No. 2, 27-48.
- Halperin, Morton H. 1972. "The Decision to Deploy the ABM: Bureaucratic and Domestic Politics in the Johnson Administration." *World Politics* 25, No. 1, 62-95.
- Jervis, Robert. 1978.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30, No. 2, 167-214.
- Kahn, Herman. 1962. *Thinking about the Unthinkable*. New York: Horizon Press.
- Kaplan, Fred. 1983. *The Wizards of Armageddo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Kim, Ilpyong J., ed. 1992. *Beyond the Strategic Triangle*. New York: Paragon.
- Kristensen, Hans M. "U.S. Changes Name of Nuclear War Plan." (<http://www.nukestrat.com/us/stratcom/siopname.htm>).
- Lieber, Keir A., and Daryl G. Press. 2006. "The End of MAD? The Nuclear Dimension of U.S. Primacy." *International Security* 30, No. 4, 7-44.
- Lindsay, James M., and Michael E. O'Hanlon. 2001. *Defending America: The Case for Limited National Missile Defens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McNamara, Robert S. 1967. "The Dynamics of Nuclear Strategy."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57, No. 1476, 443-451.
- McNamara, Robert S. 1983. "The Military Role of Nuclear Weapons: Perceptions and Misperceptions." *Foreign Affairs* 62, No. 1, 59-80.
- Mearsheimer, John J. 1984/85. "Nuclear Weapons and Deterrence in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 9, No. 3, 19-46.

- Mearsheimer, John J.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 Mitchell, Gordon R. 2000. *Strategic Deception: Rhetoric, Science, and Politics in Missile Defense Advocacy*.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 National Resources Defense Council. *Archive of Nuclear Data* (<http://www.nrdc.org/nuclear/nudb/datainx.asp>).
- Nitze, Paul H. with Ann M. Smith and Steven L. Rearden. 1989. *From Hiroshima to Glasnost: At the Center of Decision — A Memoir*. New York: Grove Weidenfeld.
- Ofer, Gur. 1987. "Soviet Economic Growth: 1928-1985."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5, No. 4, 1767-1833.
- Posen, Barry R., and Stephen Van Evera. 1983. "Defense Policy and the Reagan Administration: Departure from Containment." *International Security* 8, No. 1, 3-45.
- Richelson, Jeffrey. 1983. "PD-59, NSDD-13 and the Reagan Strategic Modernization Program."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6, No. 2, 125-146.
- Rosenberg, David Alan. 1983. "The Origins of Overkill: Nuclear Weapons and American Strategy, 1945-1960." *International Security* 7, No. 4, 3-71.
- Sagan, Scott D. 1987. "SIOP-62: The Nuclear War Plan Briefing to President Kennedy." *International Security* 12, No. 1, 22-51.
- _____. 1989. *Moving Targets: Nuclear Strategy and National Secur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wartz, Stephen I., ed. 1998. *Atomic Audit: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U.S. Nuclear Weapons since 1940*.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Schweller, Randall L. 1998. *Deadly Imbalances: Tripolarity and Hitler's Strategy of World Conques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egal, Gerald. 1982. *The Great Power Triangle*. New York: St. Martin's Press.
- Wagner, R. Harrison. 1991. "Nuclear Deterrence, Counterforce Strategies, and the Incentive to Strike Fir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 No. 3, 727-750.
- Walzer, Michael. 2000. *Just and Unjust Wars: A Moral Argument with Historical Illustrations*. New York: Basic Books.
- Yanarella, Ernest J. 1977. *The Missile Defense Controversy: Strategy, Technology, and Politics, 1955-1972*. Lexington: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 Zaloga, Steven J. 2002. *The Kremlin's Nuclear Sword: The Rise and Fall of Russia's Strategic Nuclear Forces, 1945-2000*.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 Zubok, Vladislav, and Constantine Pleshakov. 1996. *Inside the Kremlin's Cold War: From Stalin to*

226 한국정치연구 제16집 제2호(2007)

Krushchev.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Correlates of War Dataset on Material Capabilities of States, 1816-2001, version 3. 02.

ABSTRACT 

An Offensive Defense: Missile Defense and the Nuclear Posture of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old War

Bong-Jun Ho | Jeju Peace Institute

This study argues that U.S. missile defense (MD) should be reexamined beyond the widely-shared analysis that justifies it as an inevitable defense. The history of U.S. MD implementation attempts during the Cold War reveals solid consiste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S. strategic calculations to secure its strategic offensive forces and the development of a series of MD systems, not between external threats and U.S. MD development. It may be said that the U.S. constantly sought MD because of strategic advantages rather than the actual protection of U.S. territory and the general public. In other words, U.S. MD development during the Cold War was aimed at protecting its strategic nuclear forces. In this regard, MD systems were not a simple defense but primed for supporting U.S. strategic offense. To properly understand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near future, a good grasp of the complexities behind the current U.S. MD system is necessary.

Keywords: offensive defence, missile defence, nuclear posture of the U.S., offensive realism